

김정호의 『靑丘圖』 제작 과정과 지도적 특징에 관한 연구*

李起鳳**

A Study on Jeongho Kim's *Cheonggudo**

Ki-Bong Lee**

요약 : 김정호는 19세기를 살아간 인물 중에서 지도와 지지에 대해 가장 광범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한 인물이다. 그는 이러한 검토의 과정에서 그 이전까지 존재하던 지도의 장단점을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정리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러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청구도』라는 뛰어난 지도책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청구도』는 내용적으로 보았을 때 김정호가 검토한 모든 지도가 아니라 특정한 지도 계통을 중요한 저본으로 삼고 있다. 그것이 바로 정조 때 만들어진 전국 군현지도책인 『해동여지도』이다. 또한 『해동여지도』 자체도 새롭게 제작된 것이 아니라 영조 때 신경준의 주도에 의해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조선지도』를 약간만 바꾸어 놓은 것이다. 따라서 김정호의 『청구도』는 조선 후기 내내 이루어진 정확한 지도 제작의 결과물을 새로운 형식과 내용을 가미하여 탄생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청구도』에는 지도의 제작과 이용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지도의 교정에 관한 방법도 서술되어 있다. 이것은 『청구도』를 개정하려는 김정호 자신의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주요어 : 김정호, 고지도, 해동여지도, 조선지도, 청구도

Abstract : In Korea, Jeongho Kim(金正浩) is the most noted scholar who studied on a map and a topography during the 19th century. He arranged the merit and the defect of the former maps systematically through such studies and made *Cheonggudo*(『靑丘圖』, '圖do' means an atlas) in 1834. Accordingly, it reflected the result of many scholars's efforts to make accurate a complete map of Joseon. Especially, it referred to *Haedongyeojido*(『海東輿地圖』) which had been made during 1776-1787. Of course, *Haedongyeojido* also referred to *Joseonjido*(『朝鮮地圖』) which had been made by Gyeongjun Sin(1712-1781) in 1770. Jeongho Kim did not copy *Haedongyeojido* as it was but edited it newly.

Key Words : atlas, Jeongho Kim, *Cheonggudo*, *Haedongyeojido*, *Joseonjido*

1. 머리말

한국에서 전통시대의 지리학자 중 김정호 만큼 유명한 사람은 없다. 아마 한국 전통시대의 모든 인물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김정호 만큼 그렇게 유명한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를 이렇게까지 유명하게 만든 것은 뭐니 뭐니 해도 보급이 용이하도록 목판본으로 만든 『大東輿地圖』의 존재 때문이다. 전국을 동서 80리 남북 120리의 크기로 나누고, 동서 최대 19판과 남북 22

침으로 그린 『대동여지도』를 모두 연결하여 전시하면 동서 4m 남북 8m에 이르는 대형 전도가 된다(이우형, 1990, 17). 지금까지 남아 있는 朝鮮全圖로서 가장 크며, 한반도 윤곽과 지도 내부의 내용적 측면에서도 가장 자세한 편에 속한다. 게다가 현대 지도의 범례에 해당되며, 지금까지 김정호 지도 이외에는 발견되지 않는 地圖表의 존재는 김정호 지도의 과학적 우수성을 누구라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이러한 『대동여지도』에 대한 연구는 단일 지도로서 그 어떤 고지도보다도 많이 이루어져 왔다.

* 본 논문은 2003년 12월에 발행한 서울대학교 규장각의 『東輿圖』 해설의 일부를 재구성한 것이다.

** 서울대학교 규장각 책임연구원(Special Researcher, Ph.D. The Kyujanggak Archives, Seoul National University) yikibong@empal.com

그리고 그 성과가 대한지리학회에서 주관하여 연구·정리하고 국립지리원에서 2001년 12월에 발간한 『고산자 김정호 기념사업 자료집』과 『고산자 김정호 기념사업 연구보고서』에 집약되어 있다. 이 자료집을 보면 고산자 김정호에 대한 연구의 주 흐름은 생애, 지도, 지지로 나눌 수 있다. 이 중에서 지도에 대한 연구가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대동여지도』는 가장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대동여지도』가 목판본 지도로서 가장 잘 알려져 있었기 때문일 것이며, 또 한편으로는 김정호의 마지막 全圖 작품으로서 전 생애에 걸친 연구 결과가 집약되어 있다고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김정호가 그린 최초의 지도는 『靑丘圖』이다.¹⁾ 따라서 『대동여지도』의 제작 과정과 특징, 더 나아가 김정호의 지도 연구 과정 자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청구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청구도』가 소홀하게 다루어진 이유 중의 하나는 최소한 80년대까지는 『대동여지도』의 제작 과정을 그 이전에 이루어진 고지도의 성과와 연관시켜 이해하지 않은 측면이 많았다는 점이다. 물론 김정호란 인물이 기존의 고지도에 대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청구도』, 더 나아가 『대동여지도』를 만들어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지도를 어떻게 이용했는지에 대한 이해는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이해가 가능하려면 기존의 고지도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했으나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고지도의 파악 자체도 잘 안 되어 있었던 것이 당시의 현실이었다. 따라서 김정호의 지도들이 기존의 고지도와 맺고 있는 관계를 시계열적으로 찾아보는 연구가 드물 수밖에 없었다.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상태와 양보경에 의해 여러 기관, 특히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다양한 고지도에 대한 소개가 이루어지면서 서서히 김정호 이전의 고지도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어 왔다. 그 과정에서 김정호의 지도에 나타난 여러 내용적 특징들이 김정호 개인의 창작품이라기 보다는 기존 고지도의 성과를 발전적으로 계승했던 것이라는 의견이 대세적인 흐름이 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기존 고지도의 성과가 김정호의 지도들 속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가에

대한 관심은 적은 편이다. 주로 한반도 전체의 모습, 지도의 구성 체계, 제작 기법의 유사성 등의 측면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본 논문에서는 김정호의 지도 중 『청구도』가 기존 고지도의 성과를 어떻게 계승하고 발전시킨 결과 나오게 되었는가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청구도』에 표현된 한반도 전체의 윤곽, 지도의 구성 체계, 각 군현 사이의 경계, 수록된 정보의 양과 종류 등 내용적인 측면을 가장 중요한 지표로 삼고자 한다. 다시 말해 이러한 내용들이 기존의 어떤 고지도로부터 어떻게 오게 되었으며, 그것을 새롭게 편집하는 과정에서 어떤 변화를 보이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청구도』의 底本에 대한 추정

1) 선행연구의 정리

이상태는 지도의 형식과 내용으로 볼 때 『청구도』의 지본은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海東輿地圖』로 추정하였다(이상태, 1999, 215-216). 그는 이러한 추정의 근거를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이 지도에는 경상도의 山陰과 安陰이 1767년에 개칭된 山淸과 安義로, 평안도의 理山이 1776년에 개칭된 楚山으로 표시되어 있다. 또한 1822년에 설치되는 함경도의 厚州가 표기되지 않았으며, 경기도의 衿川이 1795년에 개칭된 始興으로 바꾸어 표기되지 않았다. 이를 통해 이 지도책은 정조 1년(1777)부터 정조 11년(1787) 사이에 제작된 지도로 추정하였다.²⁾ 이 지도책에는 경위선표를 이용하여 전국 8도의 주현이 표시되어 있다. 남북으로는 함경도를 1로 시작하여 전라도 해남을 118로 삼았으며, 동서로는 함경도를 역시 1로 시작하여 평안도가 76으로 되어 있다. 우리나라를 가로 76개, 세로 118개의 方眼 속에 넣어 경위도식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 지도에는 지명이 14,161개가 나오고 있는데 『청구도』에는 15,485개가 나온다. 결국 『청구도』는 『해동여지도』의 경위선표식 방법이나 주기 내용을 대체적으로 모방하고 있다고 보았다.

양보경은 일본 大阪府立圖書館에 소장된 『朝鮮圖』를 소개하면서 이 지도가 『청구도』제작의 기반이 된 지도였을 것으로 추정하였다(양보경, 1999,

421-436). 이러한 추정의 근거를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일단 이 지도에는 1800년에 개칭된 利原과 魯城이 표시되어 있고, 1823년에 혁파된 豊德이 있으므로 1800-1822년 사이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 지도책은 우리 나라 전체를 남북 26층, 동서 22판으로 나누어 구획한 채색필사본 전국지도이다. 26층의 지도 전체를 이으면 세로 546cm 가로 323.4cm의 대형 지도가 되며, 이것은 『청구도』의 83% 정도의 크기가 된다. 또한 『청구도』처럼 전국 각 군현의 경계를 점선으로 표시하고 채색하였으며, 전국지도임에도 불구하고 面名과 월경지를 비롯하여 산천, 봉수, 창고, 역원, 도로, 고적, 사찰 등을 상세하게 표시하였다. 이러한 내용들은 『청구도』보다는 소략하나 『대동여지도』에 비하면 훨씬 풍부하다고 한다. 또한 산봉우리를 그려서 산지를 나타낸 것, 도로를 적색 곡선으로 표현한 것도 『청구도』와 같은 방식이라고 보았다. 또한 지금까지 『大東輿地圖』의 가장 독창적인 특징이라고 간주되어 왔던 도로상의 10리 표시가 『조선도』에도 나온다고 한다.

오상학은 이상태의 주장을 다음과 같이 반박하면서 새로운 주장을 하였다(오상학, 2001, 12, 44-46). 『해동여지도』는 단지 한 도면상의 방안의 형태를 보면 『청구도』와 매우 유사하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방안이 『청구도』가 10리임에 비해 『해동여지도』는 20리에 해당된다. 따라서 『청구도』가 『해동여지도』를 기초로 제작했다고 보기는 무리가 따른다고 추정하였다. 또한 『해동여지도』는 몇 개의 군현을 하나의 도면에 수록하고 있는 경위선표식 군현지도책인데 『청구도』와 다른 점은 군현의 경계를 벗어난 다른 군현의 지역을 지도에서 공백으로 처리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러면서 『해동여지도』와 같은 경위선표식 군현지도책을 직접적인 저본으로 삼았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따르며, 양보경이 소개한 『조선도』와 같은 대형 전도를 바탕으로 제작될 수 있었다고 보았다.

2) 靑丘圖題와 靑丘圖凡例에 대한 검토

김정호가 『청구도』를 어떤 방식으로 제작하였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청구도』의 제작 과정과 방법을 소개한 靑丘圖題와 靑丘圖凡例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김정호가 직접 작성한 靑丘圖凡

례의 다음 구절은 『청구도』의 구체적인 저본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오랫동안 전해진 것은 오직 輿地勝覽 弁卷(各 卷首)의 八道圖本뿐이지만, 질박하고 소략하여 겨우 그 범위를 갖추었을 따름이다. 正廟朝에 여러 州郡에 명하여 해당 地方을 그려서 진상하도록 하였다. 이에 經緯線表를 두었는데 혹은 八道로 分幅하고 혹은 州縣으로 나누어 뜻에 따라 만들었다. (그 중에서) 鄭詰祚·黃燁·尹鏞의 圖本이 가장 우수했다. 대개 종이의 크기는 한정이 있어서 道本 전폭 안에 坊面과 分界線을 수용하기 어려워서 그 상세함을 다할 수 없었다. 州縣의 各本은 땅의 闊狹長短을 막론하고 반드시 一版 안에 배치하게 되어 經緯線이 절로 드물거나 촘촘한 구분이 생기게 되었다. 그 경계를 살피에 이르러서는 찾아 밝히기가 어려워 管鏡의 폐단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에 대폭의 全圖로써 層版을 정하여 고기비늘처럼 순서를 매겨 卷을 만들었으니 거의 두 가지 문제점이 없게 되었다. 地志에 실린 바의 예전에 修撰한 지도 역시 이것을 가지고 고찰할 수 있을 것이다.³⁾

앞의 예문에 의하면 김정호는 그 때까지 전해지는 가장 오래된 지도인 『輿地勝覽』에 수록된 八道圖를 보았다. 또한 정조(1776-1800) 때 각 주군에 지도를 그려 올리라고 한 점, 이 때 올린 지도에 經緯線表가 있었으며 팔도로 분폭된 지도와 군현 도로 되어 있었다는 점, 그 중에 鄭詰祚·黃燁·尹鏞의 것이 가장 우수했다는 점 등도 알고 있었다.⁴⁾ 이런 내용들이 과연 정확하게 맞는지, 맞더라도 김정호가 이런 지도를 모두 보았는지 확실하지는 않다. 그러나 기존 지도의 문제점을 지적한 부분은 김정호가 직접 보지 못하면 쉽게 쓸 수 없는 내용들이다.

김정호는 기존의 지도에 대해 첫째, 도별도에는 坊面과 경계선을 다 넣기 어려워 상세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둘째, 군현지도는 군현의 크기에 상관없이 一版 안에 그렸기 때문에 經緯線의 크기가 다르게 되었고 경계를 살피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기존 지도에 대한 이와 같은 지적을 보면 김정호가 본 도별도는 방면과 경계선이 있다고 하더라도 불완전한 지도였다. 군현지도는 고을의 크기에 상관없이 동일한 크기의 지면에 그렸으며, 이에 따라 구획된 經緯線의 크기 역시 다양한 지도였다. 또한 군현지도는 고을 사이의 경계선을 파악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은 지도였다. 이와 같은 문제

점을 극복하기 위해 김정호는 層版을 구분하여 대폭의 전도인 『청구도』를 만들었다고 했다.⁵⁾

최한기가 작성한 『청구도』의 靑丘圖題에 나오는 다음의 구절은 『청구도』제작에 가장 중요한 저본이 되었던 지도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벗 김정호는 나이가 童冠일 때부터 圖志에 깊이 뜻을 두고 오랫동안 찾아 열람하여, 여러 방법의 長短을 자세히 살폈다. 매번 한가한 때를 만나 畵本을 얻어 보고, 式簡을 견주어 보니 곧 方罫를 그려 넣음에 어쩔 수 없이 물을 자르고 산을 끊었으며, 여러 고을을 훑어 놓아 진실로 表를 보고 경계를 살피기가 어려웠다.[위의 두 구절은 流傳하는 지도의 폐단을 밝힌 것이다. 한 장 내에 里數에 따라 가로 세로의 井間을 그리고 물줄기와 산줄기를 그 위에 더하였다. 이것이 곧 물을 자르고 산을 끊는다는 것이다. 334개의 州縣을 각각 1폭에 그렸기 때문에 小縣은 넓어지고, 大邑은 도리어 축소되었다. 그 表에 따라 경계를 살피에 이르러서는 寸을 견주어 尺을 헤아리는 것과 다름이 없어서 항상 문란함이 많았다.] 이에 全幅을 구역에 따라 나눈 것은 神禹가 井田을 구획한 것을 본받은 것이고, 가장 자리의 선에 글을 쓴 것은 昭代에 曆算을 표시한 것을 모방한 것이다.⁶⁾

앞의 예문에는 김정호가 오랫동안 圖志를 찾아 여러 방법의 長短을 살폈고, 그 과정에서 기존의 고지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게 되었다고 나온다. 그러한 문제점으로 첫째, 方罫로 표현된 經緯線이나 方眼이 山水와 같은 일반적인 지도의 내용 위에도 그려져 있었다. 둘째, 여러 고을을 하나의 종이 위에 그리지 않고 여러 장에 그렸기 때문에 고을 간의 경계를 살피기가 어려웠다. 셋째, 細註에는 州縣을 동일한 크기의 지면에 그렸기 때문에 작은 고을과 큰 고을의 방안 크기가 서로 다르게 되는 문제점을 갖고 있었다. 넷째, 역시 세 주에 셋째 문제점의 결과 고을 간의 경계선을 맞추려면 서로 다른 방안 크기의 문제점을 극복해야 되었다.

기존 지도의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김정호는 『청구도』를 만들었다. 이러한 문제점은 역으로 김정호가 『청구도』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저본으로 삼았던 지도의 특징이기도 했을 것이다. 이를 통해 김정호가 『청구도』를 그리면서 가장 중요한 저본으로 삼았던 지도의 모습을 대략적으로 유추해낼 수 있다. 첫째, 山水와 같은 지도의 내용

위에도 방안이 그려져 있는 지도였다. 둘째, 모든 고을 간의 경계선이 직접적으로 맞닿게 그려져 있는 지도는 아니었다. 셋째, 동일한 크기의 지면에 그렸기 때문에 방안의 크기가 서로 다른 경우가 많은 군현지도였다. 넷째, 경계선을 서로 비교해 보려면 서로 다른 방안 크기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군현지도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靑丘圖題와 靑丘圖凡例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청구도』의 제작에서 가장 중요한 저본으로 삼았던 지도는 經緯線 또는 方眼이 그려진 군현지도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1980년대까지는 이러한 방안식 군현지도가 일부만 소개되어 있었을 뿐 전면적인 연구는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전도의 차원에서 『청구도』와 『대동여지도』의 저본을 찾으려는 경향이 주를 이룰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규장각과 국립중앙도서관, 정신문화연구원에 소장되어 있는 각종 방안식 군현지도가 소개되고 연구되었다. 따라서 이제는 이러한 방안식 군현지도와 『청구도』의 관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게 되었다.

3. 『청구도』이전 방안식 군현지도와 그 특징

1) <備邊司地圖>

방안식 군현지도집 중에서 현존하는 最古本은 서울대 규장각에 소장된 『嶺南地圖』(奎12154) 6책, 『湖南地圖』(奎 12155) 7책, 『咸鏡道全圖』(奎12156) 5책, 『湖西地圖』(奎12157) 6책, 『海西地圖』(奎12158) 3책, 『忠清左道各邑地圖』(古 4709-105) 1책이 있다.⁷⁾ 이 지도들은 영조 23년(1747)에서 26년(1750) 경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備邊司'라는 印章이 찍혀 있어 일괄적으로 <備邊司地圖>로 소개되어 있다.(양보경, 1992, 93-124) 이들 지도집에 수록된 군현지도는 모두 1리 방안 위에 그려져 있으며, 『호남지도』의 <湖南全圖>, <全羅左道地圖>, <全羅右道地圖>와 『호서지도』에 포함된 <忠清道都地圖>, 『함경도전도』에 수록된 <關北地圖>는 10리 방안 위에 그려져 있다.

이들 지도집에 그려져 있는 각 지도의 전반적인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그림 1). 첫째, 지도

의 크기, 제작 기법, 수록된 내용의 통일성은 기본적으로 전국이 아니라 도별 차원에서만 이루어졌다. 둘째, 각 고을 지도의 윤곽은 인접한 군현 사이의 경계선이 서로 맞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셋째, 전라도·경상도·충청도 등은 방안이 그려져 있지만 함경도 전체와 황해도 일부는 방안이 그려져 있지 않다. 넷째, 1리 방안으로 그려졌지만 도별로, 그리고 고을의 크기에 따라 방안의 크기가 약간씩 다른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다섯째, 방안을 그린 후에 지도를 그렸기 때문에 방안이 산천 등을 자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2) 『朝鮮地圖』

방안식 군현지도 중 검토해야 할 것으로는 서울대 규장각에 소장된 7책의 『조선지도』(奎 16030)와 3책의 『八道郡縣地圖』(古 4709-111)가 있으며⁸⁾,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8책의 『八道地圖』, 정신문화연구원에 소장된 8책의 『地圖』가 있다. 이 네 개의 지도는 정밀함에서 차이가 있을 뿐 내용적으로는 모두 동일하다.⁹⁾ 이 중 가장 정밀하게 그려진 것은 규장각에 소장된 『조선지도』와 『팔도군현지도』이며, 나머지 두 권의 지도책은 정밀함이 뒤떨어지기 때문에 후대에 전사된 것으로 보인다. 이 중 『팔도지도』는 서문의 내용으로 보아 현종 4년(1838)에 모사된 지도로 추정되고 있다.(양보경, 1995, 104) 여기서는 규장각에 소장된 『조선지도』를 중심으로 그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일단 지도에 표현된 내용의 시기적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평안도 관산의 邑治가 영조 22년(1746)과 44년(1768) 사이에 있었던 위치에 표시되어 있다. 둘째, 평안도 철산의 邑治가 영조 27년(1571)과 영조 45년(1769) 사이에 있었던 위치에 표시되어 있다. 셋째, 영조 43년(1767)에 개정된 경상도의 安義와 山淸의 명칭이 기재되어 있다. 넷째, 정조 1년(1776)에 개정된 평안도의 楚山과 충청도의 尼城이 개정되기 이전의 理山과 尼山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와 같은 사실들을 통해 볼 때 이 지도집에는 영조 43년(1767)과 44년(1768)까지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이것은 『조선지도』가 1767년이나 1768년에서 아주 가까운 시기에 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선지도』가 그 이전과 이후의 지도에 비해 갖고 있는 내용적인 측면의 특징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국의 모든 고을을 4.2cm 정도의 동일한 20리 方眼 위에 그렸다. 현재까지 남아 있으며, 『조선지도』보다 시기적으로 빨리 제작된 군현지도집 중 전국에 걸쳐 동일한 축척을 적용하여 그린 것은 아직 발견되고 있지 않다. 앞서 지적한 <비변사지도>도 1리 방안이라는 동일한 축척을 적용하여 그리려고 의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방안의 실제 크기에서 고을별, 도별 격차가 나타나고 있어 동일한 축척을 적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조선지도』 이후에 제작된 군현지도집 중에서도 이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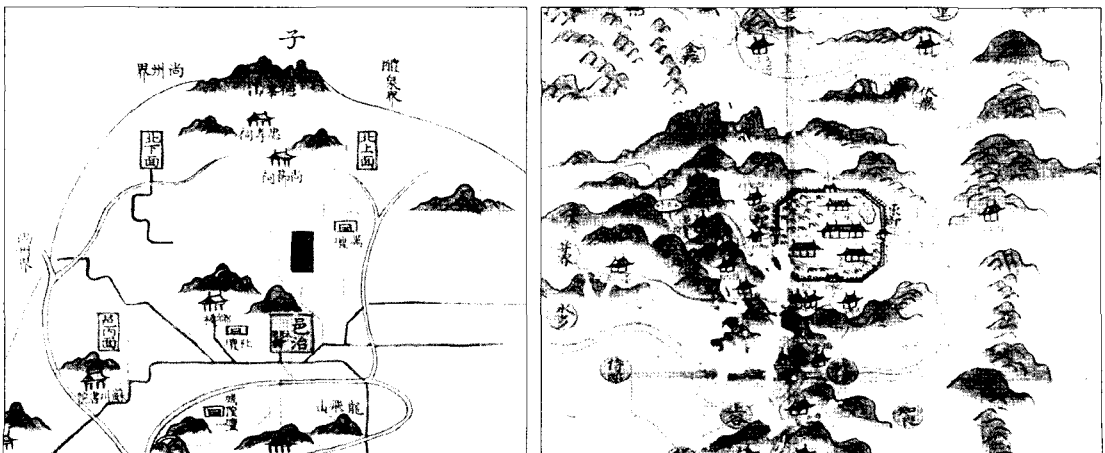


그림 1. 『영남지도』의 龍宮(왼쪽)과 『호남지도』의 羅州(오른쪽) 지도 일부

집과 내용이 같은 사본들을 제외하면 전국적으로 동일한 축척을 적용하여 그린 군현지도집은 아직 발견되고 있지 않다.

둘째, 고을마다 50cm×38cm 정도의 지도책 안에 독립적으로 그리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작은 고을은 지도책의 한 면에, 중간 크기의 고을은 지도책의 두 면에 그렸다. 그리고 두 면을 넘어가는 고을은 두 면의 크기를 훨씬 크게 하여 그린 후 접어서 포함시켰다. 이것은 동일한 지면의 크기를 기준으로 각 고을을 그린 것이 아니라 동일한 크기의 방안 위에 그려진 각 고을의 크기에 종이를 맞추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앞서 지적한 〈비변사지도〉 중에서 이와 같은 방식을 취한 것도 있지만 동일한 지면의 크기에 고을을 맞추려고 한 것이 일반적이었다.

셋째, 각 고을 내부에는 방안이 그려져 있지 않으며, 방안은 고을 외부에만 그려져 있다. 이와 같은 방식은 『조선지도』와 동일한 사본 계열을 제외하면 발견되지 않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비변사지도〉와 후술할 『해동여지도』의 경우 각 고을 내부에도 방안이 그려져 있다. 이것은 두 지도가 방안을 먼저 그린 후 그 위에 지도를 그려나갔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방식은 방안지도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방식이다. 따라서 『조선지도』와 같은 방식의 지도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방안 위에 그린 草稿本에서 각 고을 부분에 있는 방안을 제거하는 또 한 번의 모사 과정이 있어야만 한다.

넷째, 각 고을의 경계선과 越境地, 산줄기, 물줄기, 도로 등을 인접 고을과의 연결 관계를 고려하면서 그렸다. 이것은 어떤 고을의 지도도 사방에 인접한 고을과 이어붙이면 경계선, 산줄기, 물줄기, 도로 등이 서로 들어맞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 전국의 모든 고을을 서로 이어붙이면 각 고을의 경계선이 표현된 초대형의 조선전도가 완성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그리기 위해서는 각 고을 사이의 연결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畵圖나 道別圖와 같은 기본도가 필요했을 것으로 추정된다.¹⁰⁾ 또한 여러 地圖와 地誌 자료에 서로 다르게 나올 수 있는 각 고을의 거리 정보를 비교하고 조정하기 위한 치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했을 것이다.

다섯째, 동일한 정보는 동일한 기호로 표시하는

범례를 전국의 모든 고을에 공통적으로 적용하였다(표 1). 〈비변사지도〉에도 범례의 사용이 상당히 진척되어 있었지만 도별로 차이가 많았으며, 일부의 지도집에서는 도내에서도 고을마다 다른 경우가 발견되고 있다. 또한 범례의 종류도 『조선지도』보다 적으며, 정교화 되어 있지 않았다. 물론 정상기의 〈東國地圖〉계통을 비롯하여 『조선지도』 이전의 전도나 도별도에서 전국 공통의 범례가 사용되고 있었다. 그러나 범례의 종류나 정교화라는 측면에서는 지금까지 알려진 전도나 도별도 중에서 『조선지도』의 것을 능가하는 경우는 없었다. 여기서 범례라고 하기에는 어렵지만 산줄기와 강줄기의 표현과 채색 역시 전국 모든 고을이 동일하게 이루어졌음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각 고을별로 수록된 정보의 종류가 거의 동일하다. 앞서 다섯 번째에서 언급한 凡例의 정보는 전국 모든 고을에 수록되어 있다. 또한 坊面, 山地, 河川, 津渡, 驛, 牧場, 舊鎭堡, 陵園 등이 거의 전 고을에 걸쳐 수록되어 있다. 이 중 읍치에 있는 坊面이나 驛 등이 생략되어 있을 뿐이다. 다만 書院, 寺刹, 古城, 把守 등의 정보도 수록되어 있지만 각 고을에 있었던 모든 것이 수록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고을마다 편차도 보이고 있다.

3) 『해동여지도』

『해동여지도』는 각 고을의 경계선과 한반도 전체의 윤곽, 수록된 정보의 양과 종류 및 위치, 20리 방안의 사용 등 『조선지도』와 거의 동일하여 모사본으로 볼 수 있다.¹¹⁾ 그러나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의 『팔도지도』8책이나 정신문화연구원 소장의 『지도』8책이 『조선지도』를 그대로 모사한 반면에 『해동여지도』는 지도 제작의 방식과 내용에서 약간의 변형을 가하고 있다. 일단 지도에 수록된 지명이 시기적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1776년에 개칭된 충청도의 尼城과 평안도의 楚山이 『조선지도』에는 개칭 전의 명칭으로 수록되어 있지만 『해동여지도』에는 개칭 후의 명칭으로 수록되어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1787년에 신설되는 長津都護府가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지명 상으로 보았을 때 1776년과 1787년 사이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일부의 지명도 새롭게 추가된 경우가 있다. 그러나 지명의 대부분은 『조선지도』의 것과 거의

표 1. 『조선지도』의 범례

종류	기호	종류	기호
監營과 道路		鎭堡와 烽燧	
郡縣과 道路		察訪驛	
산줄기와 倉庫		兵·水·統營	
牧場(監牧官)			
정보	기호	비고	
監營	붉은색 사각형	성곽이 있는 경우 성곽모양 첨가	
兵·水·統營	파란색 사각형	성곽이 있는 경우 사각형 1개 추가	
郡縣	붉은색 큰 원	성곽이 있는 경우 원 1개 추가	
鎭堡	파란색 마름모꼴		
察訪驛	붉은색 작은 원		
倉庫	건물 모양		
牧場(監牧官)	붉은색 작은 원	황색의 원, 색이 없는 원으로 표시된 경우도 있음	
烽燧	봉수 모양		
道路	붉은색 실선		

유사하다. 『조선지도』와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해동여지도』의 특징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각 道의 지도가 시작되는 첫머리에 經緯全圖가 수록되어 있으며, 경선과 위선에 번호가 붙어 있다(그림 2). 이 경위선의 번호는 『조선지도』에는 없는 것으로서 내용적으로는 거의 동일한 『해동여지도』를 굳이 왜 만들게 되었는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된다. 경위전도에는 위선이 남북으로 함경도를 1로 시작하여 전라도에 118의 번호가 적혀 있으며, 경선은 함경도를 3으로 시작하여 평안도에 76의 번호가 적혀 있다. 그러나

각 면의 군현지도에 기록된 숫자를 종합해 보면 위선의 경우 약간 다르다. 위선은 함경도 穩城·鍾城 지도에서 1번으로 시작된다. 전라도 羅州의 서남쪽 도서인 현재의 흑산도·홍도가 수록된 지도에는 121번까지 적혀 있다. 제주도 부분에는 위선의 번호가 적혀 있지 않지만 총 10개가 적힐 수 있는 위선이 그려져 있어, 『해동여지도』 각 면의 위선 총수는 131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조선지도』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¹²⁾

경위전도와 각 면의 지도에 붙어 있는 위선과 경선의 숫자는 각 면의 지도가 어떻게 연결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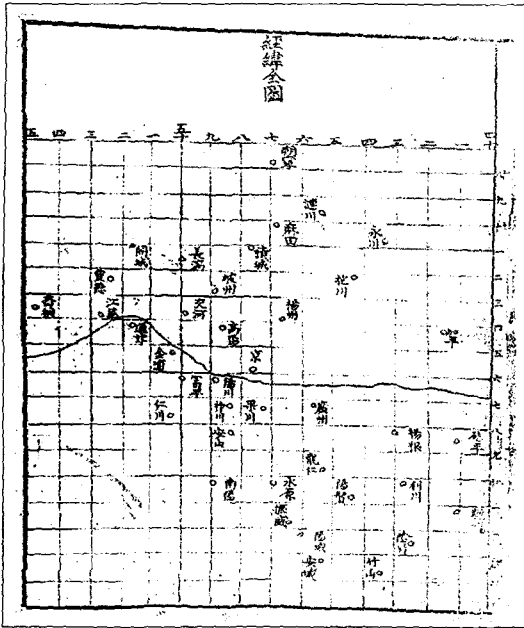


그림 2 『해동여지도』의 경위전도(경기도)

있는 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준다. 또한 각 道, 더 나아가 全圖 전체에서 각 고을이 차지하는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준다. 『조선지도』에는 바로 이와 같은 기능이 없어 全圖나 道別圖가 없을 경우 각 고을의 상대적 위치나 연결 관계를 알기가 쉽지 않다. 또한 동일한 방식으로 만든 전도나 도별도가 있더라도 대형이어서 함께 가지고 다니며 사용하기도 어렵다. 『해동여지도』는 『조선지도』의 이와 같은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제작자보다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경위전도는 아직 색인도의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다. 經緯全圖가 현대 지도의 색인과 같은 역할을 하도록 했다고 보는 경우도 있다(양보경, 1995, 107). 그러나 경위전도는 각 고을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를 보여줄 뿐 지도책에서 각 고을을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색인 기능은 아직 없다.

둘째, 20리 방안의 크기가 지도책 전체에 동일하지 않다. 『조선지도』와 달리 동일한 크기의 지면에 1-4개의 고을을 함께 수록하였다. 그런데 고을이 큰 경우 작은 고을과 같은 크기의 20리 방안을 사용하면 지면에 모두 들어갈 수 없다. 이에 따라 20리 방안의 크기를 축소할 수밖에 없게 되었으며,

그 결과 20리 방안의 크기가 다양하게 나타나게 되었다. 이것은 『조선지도』보다 지면의 수를 대폭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도이기도 하다. 이렇게 하여 지도의 부피를 줄이고, 책의 크기보다 더 큰 지도가 삽입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다. 이 부분에서 하나 더 주목해야 하는 사실은 몇 개의 군현 경계를 맞닿아 그린 것이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조선지도』가 군현 사이의 경계선을 고려하면서 그렸기 때문에 가능했던 점이기도 하다.

셋째, 방안이 지도의 내용 위에 그려져 있다는 점도 『조선지도』와 다른 점이다. 이렇게 된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동여지도』가 『조선지도』를 그대로 모사한 지도가 아니었다는 점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조선지도』에서 두 면을 넘어가는 고을을 한 면에 그리기 위해서는 방안과 지도의 크기를 줄여서 그려야 한다. 이럴 경우 먼저 방안을 그리고 그 위에 지도를 덧붙여야만 축소 과정에서 오는 왜곡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선지도』처럼 다시 한 번 모사의 과정을 거치면 지도 위의 방안은 제거할 수 있다.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경위전도에 붙어 있는 경선과 위선의 번호 때문이었다고 생각된다. 찾고자 하는 위치를 경선과 위선의 번호로 표현하려면 지도 위에도 방안이 그려져 있는 경우가 훨씬 유리하다.

넷째, 『조선지도』처럼 전국적으로 동일한 양식의 범례가 사용되고 있지만, 전체적인 일관성이 약화되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郡縣은 가운데가 바탕색인 붉은색 테두리의 원으로 표시하였다. 그리고 몇 개의 군현을 동시에 수록한 경우 바탕색 부분에 군현 명칭의 첫 글자를 써 넣은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원 바깥 부분에 한 경우도 있다. 鎭堡는 노란색 사각형으로 표시된 경우도 있으나 마름모꼴로 표시된 경우도 있다. 찰방역의 경우 사각형으로 표시한 경우도 있고 마름모꼴로 표시한 경우도 있다. 屬驛의 경우 명칭만 표시하는 것이 보편적이지만 경기도 안산의 경우 노란색 원으로 표시하였다. 烽臺의 경우 생략된 사례도 찾아지고 있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변화는 『조선지도』에 표시되어 있던 도로가 생략되었다는 점이다.

다섯째, 수록된 정보의 양과 위치라는 측면에서 대부분 『조선지도』를 따르고 있지만 일부 변화된 부분도 있다. 몇 개의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경기도 남양의 分鄕面은 수원의 경계를 넘어가 있는 월경지이다(그림 4). 그런데 『조선지도』에는 남양의 경계선 안에 있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 이것은 이 당시까지의 地誌 자료에 월경지라는 정보가 없었다는 사실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해동여지도』에는 수원 안에 있는 越境地로 교정되어 있다. 『해동여지도』 남양부의 지도에는 분향면이 다른 면과 달리 '南陽分古面'처럼 면의 이름 앞에 南陽이 첨가되어 있어 월경지임을 시사해주고 있는데, 이와 같은 자료를 바탕으로 교정한 것으로 생각된다. 경상도 경산의 경우 읍치 왼쪽의 하천이 일부 달라지고 있다. 또한 乾興院, 北面, 黃栗川, 玉山 등의 지명이 추가되고 南川, 南面 등의 지명은 삭제되어 있다. 경산 동쪽에 있는 慈仁의 경우도 하천과 수록된 지명에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것은 『해동여지도』가 단순히 『조선지도』를 축소하거나 체제를 바꾸는 정도의 작업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조선지도』를 다른 자료에 입각하여 교정해나갔음을 알려준다.

여섯째, 『조선지도』에는 없는 각 고을의 간략한 地誌가 한 권의 책으로 묶여 있다. 地誌에 수록된 각 고을의 순서는 지도에 수록된 것과 같아 상호 연결해서 이용하기 쉽도록 해놓았다. 수록된 내용은 각 고을의 民戶, 軍役의 배치, 田畝의 결수, 동서남북 경계까지의 거리, 성곽과 진보, 읍창, 방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은 각 군현의 조세 수취, 군사 편제, 행정 체제 등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로서 중앙에서 지방을 통제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이다. 그 이전의 지도책들은 대부분 지도와 지지가 결합되어 있었지만 『조선지도』에는 지도만 수록되어 있었다. 이것은 『조선지도』가 정확한 지도의 제작만을 목표로 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나타난 실제 이용에서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지지가 결합된 『해동여지도』를 새로 만들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조선지도』와 『해동여지도』의 출현은 군현단위까지도 정확하게 그렸기 때문에 조선후기 정확한 지도의 제작이라는 측면에서 획기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러한 군현지도를 연결하면 도별도나 전도에서의 정확성도 더 쉽게 담지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은 당시까지 가장 정확했다는 정상기의 東國地圖 계열보다 대추척이고

수록된 정보의 양과 종류에서 한층 방대해진 전도나 도별도가 출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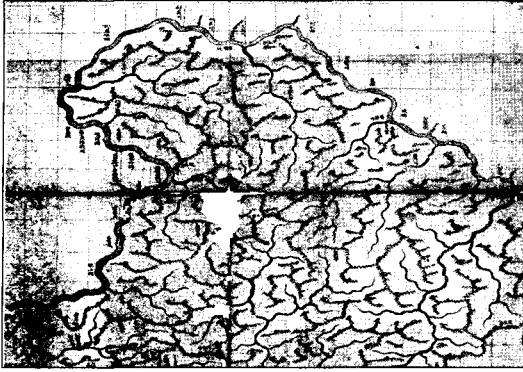
4. 방안식 군현지도와 『청구도』의 관계

1) 지도의 윤곽과 고을의 경계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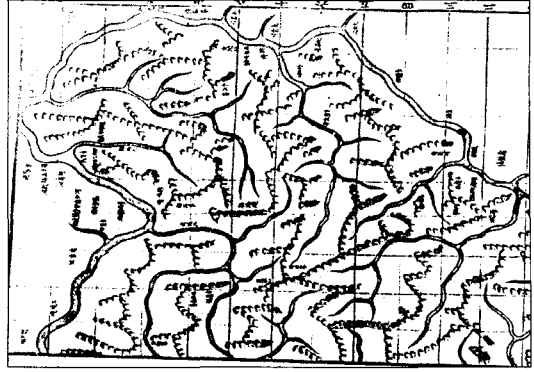
『청구도』가 앞서 검토한 방안식 군현지도를 참조하여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첫 번째 근거로는 한반도 전체나 각 고을의 경계 측면에서 나타나는 윤곽의 유사성이다. 물론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비변사지도>는 전혀 다르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참조했을 가능성은 별로 없다. 그러나 『조선지도』와 『해동여지도』의 경우는 『청구도』와 대부분이 일치한다.

대표적인 곳으로는 廢四郡 지역의 모습이다(그림 3). 18세기 이후 전도와 도별도로 민간에서 가장 많이 전사된 정상기의 『동국지도』 계통과 『청구도』는 이 부분의 모습이 전혀 다르다. 또 다른 전도와 도별도 계통인 규장각 소장의 『조선팔도지도』와 성신여대 소장의 『동국팔도분지도』는 『청구도』와 비슷하기는 하지만 정확하게 동일하지는 않다. 이 부분이 『청구도』와 거의 동일한 지도는 역시 『조선지도』와 『해동여지도』에 나오는 廢四郡의 지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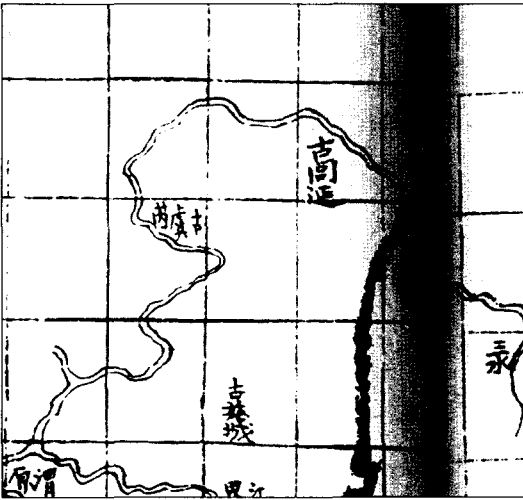
이와 같은 모습이 분명하게 나오는 또 다른 곳으로는 지금의 원산만과 함경북도 명천 지역의 모습이다. 이 부분도 정상기의 『동국지도』 계통과 『청구도』는 전혀 다르다. 또 하나의 예를 들면 강원도 통천 지역이다. 『조선지도』와 『해동여지도』에는 통천의 읍치 아래쪽에 세 개의 섬이 있으며, 이곳이 만처럼 육지 쪽으로 쏙 들어간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해안선이 남남동 방향의 직선 형태를 취하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잘못 그려진 것은 세 섬에 대한 지지의 내용이 애매하게 되어 있고, 그것을 잘못 비정했기 때문이다. 이 부분이 『청구도』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어 『조선지도』나 『해동여지도』를 그대로 베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정상기의 『동국지도』 계통은 이곳이 실제에 가깝게 그려져 있다. 그밖에도 이와 같은 유사성은 여러 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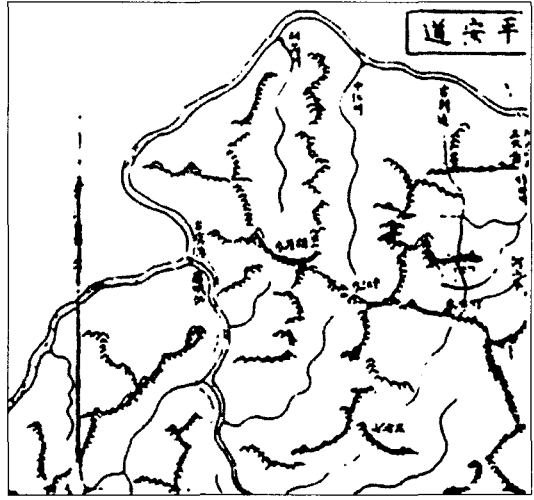
『조선지도』



『해동여지도』



『청구도』



『동국지도』계통¹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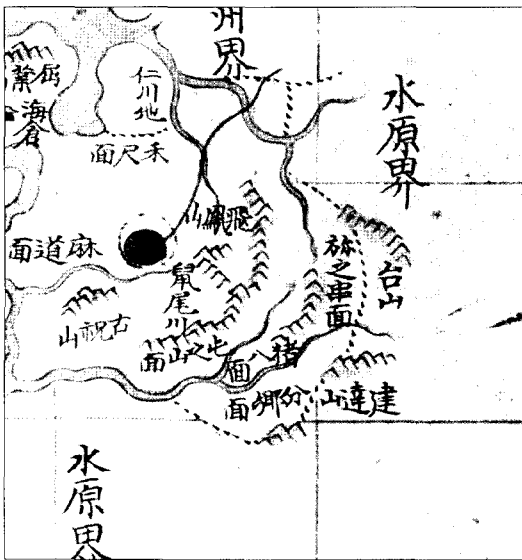
『동국지도』초기 수정본 계열

그림 3. 폐사군 지역의 운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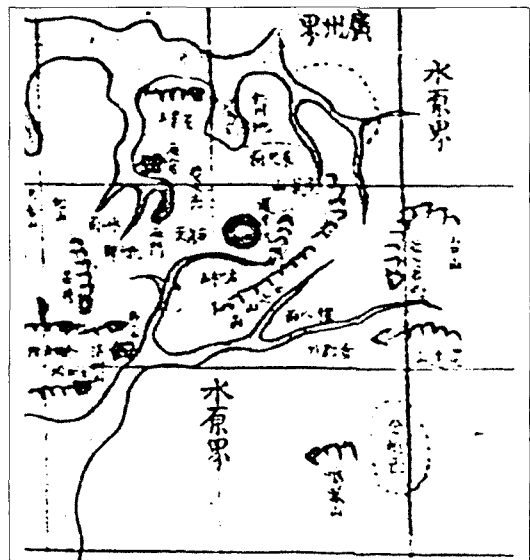
각 고을 경계선의 경우도 『청구도』와 『조선지도』 및 『해동여지도』는 대부분 거의 유사하다. 대표적인 곳으로는 『청구도』 제18층의 해미 경계선이다. 해미의 서남쪽 西面과 海倉 등의 지명은 실제와 전혀 다르게 비정되어 있다. 원래는 해미 북쪽의 海美地 부분에 비정되어 있어야 한다. 『海東地圖』 6책의 해미현과 『輿地圖書』 해미현지도의 경우 회화식이기는 하지만 서면과 주변 지명이 올바르게 비정되어 있다. 이 부분이 『청구도』처럼 비

정된 첫 번째 지도는 역시 『조선지도』 6책의 해미 지도이며, 『해동여지도』 1책의 당진·해미 지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청구도』 해미 부분에서 海美地가 월경지로 나타나는 부분도 잘못된 것인데, 역시 『조선지도』와 『해동여지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 다른 곳으로는 『청구도』 제18층의 충주·죽산-안성-진천이 접해 있는 부분이다. 이 부분의 실제 경계선은 충주-죽산-진천이 접해 있는 방식으



『조선지도』



『해동여지도』



『청구도』

그림 4. 경기도 남양의 분향면

로 그려져 있어야 한다. 『海東地圖』 6책의 충주목과 『輿地圖書』 忠原縣地圖의 경우 비록 회화식으로 그렸지만 이 부분의 경계선이 충주-죽산-진천이 접해 있다는 측면에서는 정확하다. <비변사지도>인 『충청좌도각읍지도』의 충주 지도 역시 정확성에서는 떨어지지만 이 부분이 충주-죽산-진천이 접해 있다는 측면에서는 앞의 지도들과 비슷하다. 이 부분의 경계선이 충주-죽산-안성-진천으로 되어 있는 첫 번째 지도는 『조선지도』 6책의 충주 지도이다. 그러나 이 지도에는 충주-진천의 경계선이 『청구도』에서처럼 일직선으로 되어 있지 않다. 이 부분의 경계선이 『청구도』와 동일한 것은 『해동여지도』 1책의 충주·음성·괴산·연풍·청안·진천 지도이다.

경기도 남양의 분향면은 앞서 살펴본 대로 『조선지도』와 달리 『해동여지도』에는 월경지로 변경되어 있다(그림 4). 그리고 『청구도』에도 『해동여지도』처럼 월경지로 표시되어 있다. 이것은 『청구도』가 『조선지도』보다는 『해동여지도』의 내용을 따르고 있음을 알려준다.

2) 수록된 지명

이상태에 따르면 『해동여지도』에는 14,161개, 『청구도』에는 15,485개의 지명이 수록되어 있어 후자가 1,324개가 더 많다고 한다.¹⁴⁾ 그러나 『청구도』에 『해동여지도』에는 없는 都城全圖가 실려 있으며, 이곳에 상당히 많은 지명이 수록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거의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일부의 고을에서 지명이 더해진 곳도 있지만 대부분은 『해동여지도』, 더 나아가 『조선지도』와 거의 동일한 것이 일반적이다. 몇 개의 예를 들어보겠다.

『청구도』 제18층 해미현 경계선 안에 표시된 지명의 경우 『조선지도』 6책의 해미 지도, 『해동여지도』 1책 당진·해미 부분의 해미와 동일하다. 다만 伽耶山의 위치와 동쪽 부분의 경계선 표시가 약간 다르다는 차이밖에 없다. 『청구도』 제14층 토산 부분은 『조선지도』 4책의 토산 지도와 『해동여지도』 2책의 토산 부분에 있는 生解峴이 없는 것과 일부 지명에 글자가 추가된 것을 제외하면 수록된 지명이 모두 동일하다. 다만 지명의 위치가 약간씩 다르게 표시되어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은 예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으며, 『청구도』가 『조선지도』와 『해

동여지도』보다 약간 더 첨가한 정도에 불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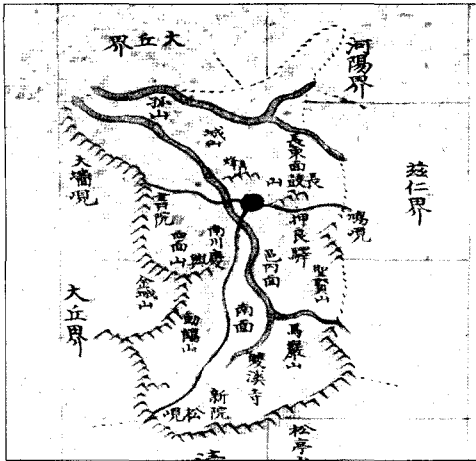
그러면 수록된 지명의 입장에서 볼 때 『조선지도』와 『해동여지도』 중 『청구도』가 더 많이 참고한 지도는 어느 것일까? 앞서 살펴본 경산 지역은 지명이나 하천의 표시에서 『조선지도』와 『해동여지도』가 약간이나마 다르게 되어 있는 곳이다.(그림 5) 하천의 표시에서 『청구도』는 『해동여지도』와 같다. 지명의 경우 『해동여지도』에 없었던 南面을 첨가한 것을 제외하면 『청구도』는 『조선지도』보다는 『해동여지도』와 동일하다. 이러한 예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결국 『청구도』는 수록된 지명의 내용이나 종류의 측면에서 볼 때 『해동여지도』를 저본으로 하여 일부 지명의 가감과 위치의 변경을 가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여겨진다.

3) 동서와 남북의 총 길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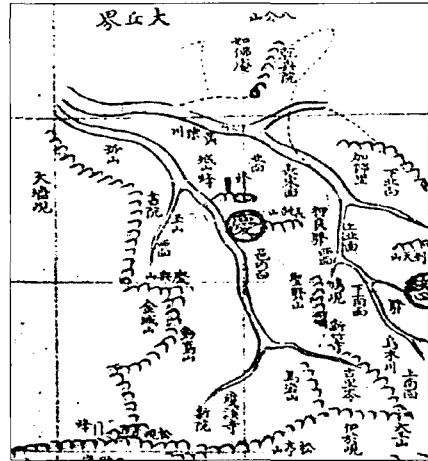
『청구도』는 전국을 가로 22판, 세로 29층으로 나누고, 홀수 층은 乾冊에 짝수층은 坤冊에 수록하였다. 각 책의 한 면은 가로 70리 세로 100리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면의 위와 왼쪽 또는 오른쪽에 10리의 방안이 기록되어 있다. 반면에 『조선지도』에는 전국적으로 가로 75개 세로 130개의 20리 방안이 동일한 크기로 만들어져 있다. 『해동여지도』도 전국적으로 가로 75개 세로 130개의 20리 방안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동일한 크기의 지면에 다양한 크기의 고을을 모두 넣으려 했기 때문에 방안의 크기가 다르다.¹⁵⁾

『청구도』는 동서 총 길이를 $22 \times 70리 = 1,540리$ 로, 『조선지도』와 『해동여지도』는 $75 \times 20리 = 1,500리$ 로 표현한 것이 되어 양자 사이에 40리의 차이가 나타난다. 그러나 조선의 최 서쪽 부분에 해당되는 『청구도』 제9층 22판과 『해동여지도』의 의주 지도를 보면 이러한 차이의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 동쪽으로부터 두 지도에 표시된 威化島 부분까지의 里數는 약 1,500리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해동여지도』에서 방안으로 처리되지 않은 위화도 서쪽의 40리가 『청구도』에는 그려져 있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도』와 『해동여지도』는 조선의 동서 폭을 동일하게 보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청구도』는 남북 총 길이를 $29 \times 100리 = 2,900리$ 로, 『조선지도』와 『해동여지도』는 $130 \times 20리 = 2,600리$ 로 표현한 것이 되어 양자 사이에 300리의 차이



『조선지도』



『해동여지도』



『청구도』

그림 5. 경상도의 경산

가 나타나고 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먼저 두만강 최북단으로부터 현재 땅끝마을이라고 불리는 해남군 송지면 송호리의 토말까지 두 지도에 표현된 거리를 살펴보도록 한다. 『청구도』의 24층 15관의 崧岩地에 있는 최남단의 葛頭山이 현재의 땅끝마을인데 24층의 맨 마지막에 있으니 북쪽으로부터 약 $24 \times 100리 = 2,400리$ 에 있는 것으로 그려진 것이다. 『해동여지도』의 1책 전라도 靈巖 지도의 위선 119번에 가까운 곳에 葛頭(山)가 위치해 있다. 따라서 북쪽으로부터 118방안 $\times 20리 = 2,360리$ 에 있는 것이 되어 『청구도』보다 약 40리가 더 적다. 그런데 『해동여지도』 2책의 온성·중성 지도와 『청

구도』 제1층 3판을 보면 후자가 전자보다 약 30리를 더 그려주고 있어 양자 사이에는 10리의 격차밖에 나타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남북의 길이라는 측면에서 보아도 두 지도는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두 지도 사이에 나타나는 남북 380리의 차이는 『청구도』에 설정된 남해안 남단과 제주도 북단 사이의 거리 때문에 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4) 方眼

『조선지도』와 『해동여지도』의 방안은 20리로 이루어져 있지만 『청구도』의 방안은 10리로 이루어

져 있다. 일단 방안의 기준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10리는 20리 방안을 1/2로 나누어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청구도』가 앞의 두 지도와 서로 연관되어 있지 않다고 볼 만한 근거는 되지 못한다. 이미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청구도』가 앞의 두 지도와 조선의 동서·남북 길이를 거의 동일하게 표현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방안의 기준이 10리와 20리였다는 차이점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다음으로 방안을 그리는 방법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조선지도』의 경우 방안을 가로 세로로 그렸지만 지도의 내용 위에는 그리지 않았다. 반면에 『해동여지도』는 지도의 내용 위에도 방안을 가로 세로로 모두 그렸다. 靑丘圖題에서 재래 지도의 단점 중의 하나로 지적된 방안이 산천을 자른다는 문제점을 고려해 보면 『청구도』는 『조선지도』보다는 『해동여지도』를 저본으로 삼았다고 할 수 있다. 靑丘圖凡例에는 도면에 井間, 즉 方眼을 그리는 폐단을 줄이는 방법이 설명되어 있다. 얇은 影字(井間이 비치는 종이)를 사용하여 그리면 굳이 도면에 井間, 즉 方眼을 그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조선지도』의 20리 방안은 전 지역에서 4.2cm로 통일되어 있어 면적이 큰 고을의 경우 책의 크기를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 이럴 경우 특별히 큰 종이를 사용하여 그린 후 접어서 책에 삽입하는 형태를 취했다. 『해동여지도』에는 동일한 크기의 지면에 면적이 큰 고을도 표현하려고 했기 때문에 20리 방안의 크기가 다양하다. 반면에 『청구도』의 10리 방안 크기는 2.1cm로 동일하다. 청구도범례에 경위선의 크기가 다르다고 언급한 점, 청구도제에 33개의 주현을 각각 1폭에 그렸기 때문에 小縣은 넓어지고, 大縣은 오히려 축소된다고 언급한 점을 고려하면 『청구도』는 『조선지도』보다 『해동여지도』를 저본으로 삼았다고 보아야 한다.

방안의 크기가 다른 지도를 동일한 크기로 만들거나 방안의 크기가 동일하더라도 크기를 다르게 묘사하려면 확대와 축소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靑丘圖凡例에는 축소와 확대의 원리에 관한 『幾何原本』의 설명이 삽입되어 있다. 이것은 『청구도』의 제작을 위해 참고한 지도가 『청구도』보다 더 작거나 컸기 때문에 축소와 확대를 꼭 필요로 했기 때문일 것이다. 더 나아가 『해동여지도』처럼

20리 방안의 크기가 다양한 지도를 동일한 방안의 형태로 그릴 경우에는 축소와 확대의 원리에 관한 『기하원본』의 설명이 더욱더 필요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5. 『청구도』의 독창적 특징

1) 索引圖

『청구도』에는 索引圖의 역할을 하는 <本朝八道州縣圖總目>이 수록되어 있다(그림 6). 이와 같은 색인도는 현재까지 전해진 지도책 중에는 『청구도』가 유일하기 때문에 김정호 스스로 창안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아무 것도 참고하지 않고 창안한 것일까? 대부분의 지도책에는 그 안에 있는 지도의 목록을 고을 이름의 목차로만 적어놓았던 반면에 『해동여지도』에는 經緯全圖라는 표가 나온다.¹⁶⁾ 이 경위전도는 앞서 언급했듯이 지도책에 포함된 지도를 찾아가는 방법을 만들어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索引圖는 아니다. 그러나 각 고을의 상호 연결 관계를 살피는데 도움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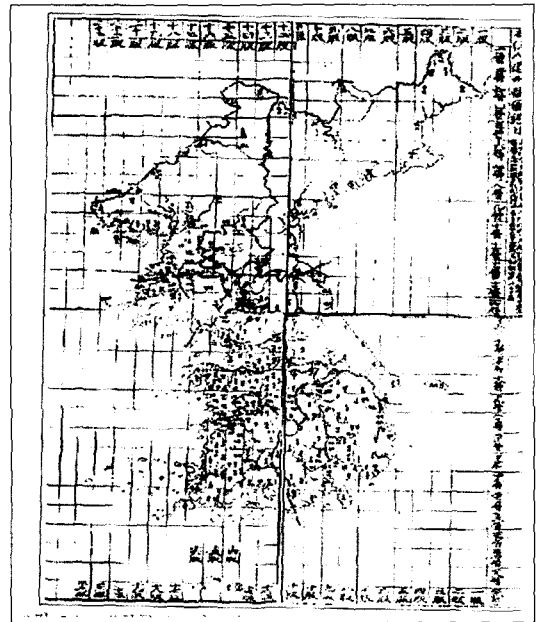


그림 6. 『청구도』<조선팔도주군총목>의 일부

자료: 오상학, 2001, 43.

청구도제와 청구도법례에는 '表를 살펴 경계를 조사하기가 어렵다'는 표현이 나온다. 이것은 김정호가 참고한 지도에는 각 고을의 연결 관계가 표로 정리되어 있었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해동여지도』에 나오는 경위선표가 바로 그것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 경위선표에는 방안의 가로 세로에 일련번호가 붙어 있으며, 각 지도의 방안에도 가로 세로에 일련번호가 붙어 있다. 따라서 두 개를 서로 비교 검토하면 각 지도의 연결 관계가 쉽게 이해될 수 있다. 『청구도』에 나오는 〈本朝八道州縣圖總目〉의 원리도 『해동여지도』의 경위전도와 동일하다. 다만 『청구도』의 〈本朝八道州縣圖總目〉에는 全圖와 河川을 표시하여 『해동여지도』의 경위전도에는 없는 색인도의 기능을 첨가한 차이가 있을 뿐이다.

2) 지도 구성 방법

지도의 구성 방법이라는 측면에서 『청구도』는 『해동여지도』와 전혀 다르게 되어 있다. 이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¹⁷⁾ 첫째, 각 고을을 모두 연결시켜 그리고 있다. 둘째, 세로 100리 가로 70리를 한 면으로 나누어 가로 22판, 동서 29층으로 나누어 수록하였다. 셋째, 각 면의 위와 왼쪽 또는 오른쪽에 10리의 방안을 표시했을 뿐 지도 위에는 방안을 그리지 않았다. 김정호는 이와 같은 방식을 고안해 내기 위해 기존 지도의 문제점을 꼼꼼하게 추적했던 것 같다. 그런 검토의 결과를 靑丘圖題와 靑丘圖凡例에 세심하게 기록하여 놓았기 때문이다.

이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도제와 청구도법례에는 군현별로 그릴 경우 나타나는 기존 지도의 문제점을 지적해 놓고 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취한 방법이 첫째와 둘째의 특징이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방안이 지도 위에도 그려져 있어 산과 물을 자르는 기존 지도의 문제점도 지적해 놓았다. 그리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 역시 靑丘圖凡例에 나오고 있다. 즉, 얇은 影字(井間이 비치는 종이)를 사용하여 그리면 군이 도면에 井間, 즉 方眼을 그리지 않아도 되어 있다고 했다.

3) 都城全圖

都城을 자세하게 그린 지도는 『청구도』 이전에도 많이 있었다. 대부분의 都城圖는 낱장의 개별지

도로 존재하며, 회화식 군현지도책에도 都城圖가 삽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정보의 정확한 위치를 중요하게 그린 『조선지도』나 『해동여지도』에는 都城圖가 특별히 삽입되어 있지 않다. 두 지도책에서 都城은 다른 지역과 동일한 방식으로 그려져 있어 작은 원 정도로만 표시되어 있을 뿐이다. 이것은 위치적 정확성을 추구하기 위해 동일한 축척을 적용할 경우에 나타나는 어쩔 수 없는 방식이다. 그러나 전통시대에 都城은 단순히 점으로만 표현될 수 없는 정치적·사회적 위상을 가지고 있었으며, 작은 공간 위에 상대적으로 많은 정보가 밀집되어 있다. 청구도법례의 마지막 항목에 바로 이러한 내용이 적혀 있다.

김정호는 都城의 정보를 정확하게 그린 많은 지도를 접하면서 『해동여지도』가 갖고 있는 도성 표현에 대한 한계를 이해한 것 같다. 그러나 『청구도』도 『해동여지도』처럼 위치 정보의 정확성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기준 하에서 都城의 정보를 자세하게 표현하는 방법은 축척을 달리하는 독립된 지도로 그리는 것 밖에 없다. 이러한 방법은 회화식 군현지도집 속에 이미 나타나 있지만 방안을 그려 위치의 정확성을 표현한 지도로는 『청구도』가 처음이다. 따라서 이러한 방법 역시 기존의 여러 지도를 비교 검토하는 과정에서 김정호가 창안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¹⁸⁾

4) 地誌 정보의 결합

(1) 통치 정보

『조선지도』에는 지리적 내용 자체가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해동여지도』에는 통치와 관련된 내용은 지지가 3책으로 분리되어 존재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지도와 지지를 결합시켜 놓는 것은 전통적인 군현지도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던 것으로서 중앙에서 각 군현을 파악하고 통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이었다. 김정호도 기존의 많은 지도를 검토하면서 이와 같은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보이며, 靑丘圖凡例에서도 이 문제를 하나의 항목으로 설정해 놓았다. 그리고 지도에 기록해야 할 필수적인 요소로서 戶口·田結·穀總·軍丁 등을 뽑고 있으며, 純宗[純祖] 戊子年(1828)의 備局都錄의 것을 신는다고 적어 놓았다. 이와 같은 방식은 지리적 내용을 함께 수록한 군현지도에서도 중앙

에서 각 군현을 파악하고 통제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수록한 것들이다.

그런데 지리적 내용의 수록에서 『청구도』가 갖고 있는 독특한 특징은 戶口·田結·穀總·軍丁의 수와 서울까지의 거리를 각 군현이 표현된 지도 위에 직접 기록해 놓았다는 점이다. 그러면 일반적인 군현지도처럼 지도의 여백이나 이면에, 『해동여지도』처럼 하나의 독립된 책으로 적어놓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청구도』에는 적혀 있지 않다. 여기서 『청구도』의 형식이 각 군현을 분리시켜 그렸던 일반적인 군현지도와 다르다는 점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첫째, 『청구도』에는 각 군현의 독립된 여백이 있을 수 없어 여백에 적는 방식을 적용할 수 없다. 둘째, 『해동여지도』처럼 각 고을의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분리된 책으로 만들 경우 일일이 찾아 대조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김정호는 가장 중요한 내용을 지도 위에 직접 기입하는 형태를 새롭게 창안한 것으로 추정된다.

(2) 역사 정보

『청구도』에는 다양한 역사 정보가 수록되어 있다. 첫째, 신라 이후 각 군현 명칭의 변화를 邑治 주위에 신라는 '羅'로, 고려는 '麗'로 구분하여 적고 있다. 둘째, 古縣의 명칭을 대부분 수록하고 있다. 셋째, 과거의 전투 기록 등 당시로서는 중요한 여러 역사정보를 해당 장소에 간략하게 적고 있다. 이 중 첫째에 해당되는 내용은 다른 지도책에서는 잘 볼 수 없는 내용으로서 현재까지는 『청구도』에서만 발견되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靑丘圖凡例에도 2개의 항에서 역사지도로서의 성격에 대해 설명해 놓고 있다.

東方諸國圖, 漢四郡 시기의 四郡三韓圖, 삼국시대 초기의 상황을 보여주는 三國前圖는 靑丘圖凡例에 여러 사람의 의견이 있어 왔지만 考證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삭제한다고 되어 있다. 여기서 삭제한다는 것은 『청구도』의 내용 자체에 세 지도에 표현된 시기의 지명을 기록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또한 통일신라의 상황을 보여주는 新羅九州郡縣總圖, 고려시대의 高麗五道兩界州縣總圖가 붙어 있는데 이 두 지도는 앞쪽의 本朝八道州縣圖總

目처럼 索引圖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것은 『청구도』에 이 두 시기의 지명이 모두 실려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런 지명에 대한 索引圖를 붙인다는 것 자체도 김정호의 독창적인 창안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本朝八道盛京合圖가 나온다. 이 지도는 만주와 한반도를 합해 놓은 지도로서 조선후기에 발달한 '西北彼我兩界地圖' 류의 關防圖의 영향으로 생각된다.

(3) 자연지리 정보

『청구도』에 수록되어 있는 地誌의 내용 중의 하나는 자연지리적 정보가 간략하게 해당 장소에 기록되어 있다는 점이다. 『청구도』에는 等高線과 같이 지형의 높낮이를 표현할 수 있는 현대적 방법이 적용되고 있지 않다. 다만 山의 표현에서 크거나 겹쳐진 줄의 수로서 지형의 높낮이를 일부 표현하기는 했지만 이것도 분명한 것은 아니다. 또한 해안가의 절벽이나 바다의 깊이를 표시할 수 있는 凡例가 개발되어 있었던 것도 아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요소들이 당시 사회적, 경제적, 심리적인 측면에서 인간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적지 않았다. 따라서 여러 地誌에는 자연지리적 정보가 반드시 수록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김정호도 이 점을 분명하게 인식한 것 같으며, 중요한 자연지리적 특징을 여러 지역에 수록해 놓았다.

5) 범례

범례의 종류라는 측면에서 보면 『청구도』는 『조선지도』나 『해동여지도』에 비해 상당히 후퇴한 느낌을 주고 있다. 그러나 자세히 관찰해 보면 꼭 그렇게 볼 수 없는 부분도 많다. 범례의 용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동일한 정보를 동일한 기호로 표시하여 지도에 수록된 정보에 통일성을 부여하고, 이용자들이 하여금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이다. 이 점에서 보면 『청구도』의 제작 과정에서 김정호는 기존 지도를 검토하면서 몇 가지 새로운 방식을 창안해냈다고 볼 수 있다.

靑丘圖凡例에는 凡例와 관련 있는 항목이 2개 나오고 있다. 첫째, 坊面の 호칭이 面·坊·社와 같이 지방마다 다른 점을 지적하면서 面으로 통일시키고 있다. 둘째, 鎭堡·寺院·驛·倉 등의 위치 표시가 갖고 있는 애매함을 극복하기 위해 鎭·

寺·驛·倉의 글자 부분이 위치임을 밝히고 있다. 이 두 가지는 기호를 사용한 것은 아니지만 전국적인 통일성을 유지했다는 측면에서 보면 현대지도의 범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이 밖의 범례 사용에 대해 靑丘圖凡例에는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청구도』 자체를 보면 김정호가 여러 정보를 기호의 사용을 통해 통일적으로 표현하려 했음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청구도』에 사용된 범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¹⁹⁾

첫째, 郡縣 읍치의 경우 세로로 길고 큰 사각형을 통해 정보를 통일시켰지만 안쪽에 고유 명칭 두 자를 적어놓아 다른 군현과 구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더 나아가 군현 사이의 격의 차이를 표현하기 위해 사각형 아래나 오른쪽에 牧(使), 府(使), (郡)守, (縣)監 등의 한자를 한 자씩 써넣었다. 둘째, 鎭堡의 경우 작은 정사각형을 통해 정보를 통일시켰지만 안쪽에 파견된 관리 명칭의 첫 글자를 넣어 등급을 구별하였다. 그리고 바깥쪽에 鎭堡의 고유 명칭을 적어놓았는데 군현의 경우와 정 반대되는 방식이다. 이와 같은 고려도 혹은 있을지 모르는 군현과 진보 사이의 혼동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兵營, 水營, 統營, 각종營은 세로 또는 가로로 긴 작은 사각형 안에 명칭을 적어 넣었다. 이것은 『조선지도』나 『해동여지도』에서 鎭營의 범례가 강화되어 있는 것과 비교되는 측면으로 『청구도』가 군현의 영역과 경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넷째, 驛·面·倉·牧場은 鎭堡와 동일한 크기의 사각형으로 범례화시켜 혼동을 줄 수 있게 그려져 있다. 그러나 안쪽에 驛·面·倉·牧이라는 글자를 써넣음으로써 구별할 수 있도록 하였다. 監牧官이 파견된 牧場의 경우 세로로 긴 작은 사각형 안에 '牧所'를 써넣어 구분하였다. 다섯째, 해당 면에 읍치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지역과 越境地처럼 어느 고을의 땅인지 분명하게 이해할 수 없는 경우 가로 또는 세로로 긴 작은 사각형 안에 '○○地'라고 표시하여 구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섯째, 烽燧는 불이 타오르는 삼각형 모양으로 그려져 있다. 이외에 도로가 홍색 실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점도 눈에 띈다.

이러한 범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청구도』에서는 『조선지도』나 『해동여지도』처럼 색과 기호의

형태를 통해 여러 정보를 구별하는 기능은 상당히 약화되어 있다. 이것은 『청구도』가 여러 군현을 분리하지 않고 한 도면에 연속적으로 그린 지도책이라는 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럴 경우 동일한 정보를 동일한 기호로 표시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들 정보 사이에 내재해 있는 차이점도 기록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군현의 읍치가 한 도면에 3개 나타날 경우 읍치라는 정보의 동일성과 서로 다른 군현의 읍치라는 차이점을 동시에 표현해야 한다. 『해동여지도』에서도 몇 개의 군현을 하나의 도면에 수록하기 위해 『조선지도』와 달리 붉은색 테두리의 원 안이나 밖에 군현 명칭의 첫 글자를 써넣는 방식을 취한 바 있다. 道別道나 全圖의 경우 『청구도』 이전의 지도에서도 이와 같은 상황은 항상 부딪히는 문제였다. 김정호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는 방법을 여러 지도를 비교 검토하는 과정에서 『청구도』에 맞는 범례를 새롭게 만들어냈다고 생각된다.²⁰⁾

6) 地圖式

청구도범례에 나타나 있는 地圖式은 다른 지도책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것이다(그림 7). 따라서 그 동안 지도식을 『청구도』 자체를 그렸던 방법으로 이해하기도 했다.²¹⁾ 그러나 이것은 『청구도』가 기존의 방안식 군현지도를 저본으로 하여 만들어졌다는 사실에 주목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김정호는 『해동여지도』와 같은 지도를 저본으로 『청구도』를 그렸기 때문에 지도식에 나오는 그런 내용을 적용하지는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 방안의 크기가 다른 『해동여지도』를 모사하려면 축소와 확대의 원리를 적어놓은 청구도범례의 『幾何原本』 내용은 적극적으로 이용해야만 했을 것이지만 위치 자체를 스스로 잡아나갔다고 볼 수는 없다.

지도식은 『청구도』를 그리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니다. 청구도범례에서도 각 고을에 지도를 나누어 준 다음 교정하도록 하는 과정을 설명한 부분에 지도식이 나온다. 지도식은 사방을 12개의 방위로 나누고, 10리 간격의 원을 그려 위치를 바로잡아 나가도록 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김정호가 『청구도』를 제작할 당시에 참조할 수 있는 地誌 자료에는 방위 표시가 보통은 동서남북 4개, 더 세분되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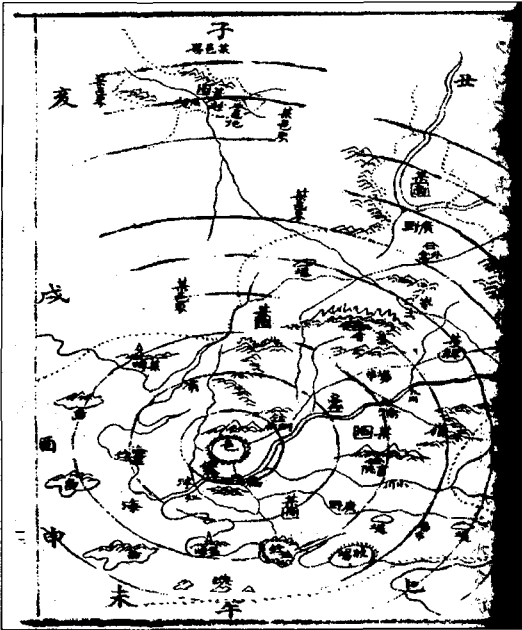


그림 7. 『청구도』의 地圖式

동북·동남·서북·서남 등의 8개 정보밖에 나오지 않는다. 따라서 12개의 방위로 나누고 『청구도』를 그려나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조선지도』나 『해동여지도』도 기존 지도와 지지 자료를 종합하여 만든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를 표현했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

청구도범례의 다른 항목에서 여러 지지에 나타난 방향과 거리 정보의 차이를 언급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런 차이를 현재 교정하지 않고 舊圖의 것을 일단 기록한 다음 後考를 기다린다는 것이 김정호의 입장이었다. 이렇게 볼 때 김정호는 『해동여지도』를 저본으로 하여 『청구도』를 제작하면서 후일의 교정본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교정에 정부의 힘이 닿을 수 있다면 각 고을에 내려 보내서 할 수 있다는 희망도 가졌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 희망이 이루어졌을 때 보다 정확한 지도를 만들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한 것이 바로 지도식이라고 볼 수 있다.

6. 결론

김정호는 19세기를 살아간 인물 중에서 지도와

지지에 대해 가장 광범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한 인물이다. 그는 이러한 검토의 과정에서 그 이전까지 존재하던 지도의 장단점을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정리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청구도』라는 뛰어난 지도책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이다. 『청구도』에는 그 이전까지 진행되어 온 조선 후기의 지도에 대한 연구 성과가 집약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김정호 스스로 창안한 내용이 새롭게 부가되어 있다.

그러나 『청구도』는 내용적으로 보았을 때 김정호가 검토한 모든 지도가 아니라 특정한 계열의 지도를 중요한 저본으로 삼고 있다. 그것이 바로 정조 때 만들어진 전국 군현지도책인 『해동여지도』이다. 이 지도책에는 전국의 군현이 20리 방안 위에 그려져 있었으며, 더 나아가 각 고을의 경계와 해안선, 하천, 산지 등의 윤곽을 정확하게 표현하려 노력한 흔적이 역력하게 남아 있다. 더 나아가 『해동여지도』 자체도 새롭게 제작된 것이 아니라 영조 때 신경준의 주도에 의해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조선지도』를 체제와 내용을 이용하기 좋은 방식으로 바꾸어 놓은 것이다.

따라서 김정호의 『청구도』는 조선 후기 내내 이루어진 정확한 지도에 대한 제작 노력의 결과물을 새로운 형식과 내용을 가미하여 만들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청구도』의 청구도범례에는 지도의 제작과 이용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지도의 교정에 관한 방법도 서술되어 있다. 이것은 『청구도』를 개정하려는 김정호 자신의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동여도』와 『대동여지도』는 바로 이러한 의지를 실현하기 위한 김정호의 노력 속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논문의 한계는 현재 전해지고 있는 『청구도』의 다양한 이본들에 대한 검토를 행하지 못한 것이다. 이 부분은 앞으로 따로 심도 깊은 연구를 통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그 과정에서 김정호가 『청구도』를 만들기 이전에 어떤 지도를 어떻게 연구하였는지, 『청구도』를 만드는 과정에서 어떤 고민을 했는지,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청구도』는 어떤 것인지가 밝혀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의 성과는 김정호가 『청구도』 이후 진행시킨 지지와 『동여도』·『대동여지도』의 제작이 왜,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는가를 이해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註

- 1) 김기혁(2004) 교수의 조사에 의하면 현재 국립중앙도서관(2), 장서각(1), 영남대(2), 규장각(2), 고려대(1), 숭실대(1) 등에 9개의 『청구도』 이본이 남아 있으며, 몇 개의 유형으로 구분된다고 한다. 또한 『청구도』 이전의 근원지도를 4계열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이후의 대축척 전도의 제작에 바탕이 된 것은 본 논문에서 언급할 『조선지도』 계열로 분석하고 있다. 필자는 김기혁 교수에 의해 분류된 『청구도』의 형식을 『조선지도』 계열과 청구도 범례의 내용을 기준으로 비교하여 다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첫째, 『청구도』의 다양한 이본들은 후대의 모사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지만 김정호 자신이 여러 이본을 제작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둘째, 청구도범례는 최종적으로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여러 이본들 중에서 최종적인 『청구도』에 가까운 것은 청구도범례의 내용에 부합되는 것으로 보게 되었다. 이러한 분석 과정에서 최종적인 『청구도』에 가장 가까운 것은 첫째, 청구도범례가 있을 것 둘째, 청구도범례에 등방제국도, 사군삼한도, 삼국전도 등은 생략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없을 것 셋째, 청구도범례에 신라구주군현총도, 고려오도양계주현총도, 본조팔도성경합도를 뒤에 붙인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을 것 넷째, 산을 산줄기가 아니라 고된 봉우리 모양으로 붙인다고 했기 때문에 산줄기가 아니라 봉우리로 표현할 것 등의 특징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부합하는 것으로는 규장각에 소장된 『靑丘要覽』2책과 고려대에 소장된 『청구도』2책이었다. 이 중 본 논문에서는 규장각에 소장된 『청구요람』2책을 중심으로 『청구도』의 제작 과정과 지도적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청구요람』의 기타 내용을 청구도범례의 내용과 자세히 비교해 보면 거의 부합되고 있다. 다만 본 논문에서는 『청구도』의 여러 이본들에 대한 특징을 전면적으로 분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한 오류를 범할 수 있으며, 이러한 오류는 『청구도』의 여러 이본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가 수행되면서 수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2) 『해동여지도』의 제작 하한 시기를 정조 11년(1787)으로 잡은 이유가 이 글에서는 분명하지 않다. 아마도 정조 11년(1787)에 설치되는 長津府가 『해동여지도』에는 鎭으로만 표시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잡은 것으로 생각된다.
- 3) 壽其傳者 惟有輿地勝覽弁卷之八道圖本 質略朴野 僅具範圍 正廟朝分命諸州郡 圖形該地方以上 於是經緯線表或以八道分幅 或以州縣分依 任意裁作 鄭詰詐黃燁尹錫之本最著焉 蓋緒方有限 道本全幅之內 難容坊面與分界線 則無以盡其詳矣 州郡各本 無論其地之闊狹長短 必排布於一版之內 經緯線自有疏密稀稠之分 及其查界 難於尋表 則未免管窺之弊 故茲庸大幅全圖 局定層版 鱗次成卷 庶無二患 而地志所載前修撰圖 亦可將此而考焉
- 4) 영조대에 이미 經緯線表를 사용한 군현지도가 있었음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이 기록은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이 기록에 나오는 정철조, 황엽, 윤영은 정조대 이전 인물이기 때문에 영조대의 내용을 잘못 기록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잘못된 기록이라고 단정 짓기 보다는 아직 유보하는 선에서 이 기록을 이해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 5) 한 심사자로부터 “故茲庸大幅全圖”을 “(기존에 있었던) 대폭의 전도를 사용하여(저본으로 활용하여)”라고 해석해야 하며, 필자처럼 “대폭의 전도인 청구도를 만들었다”라고 이해하면 엉뚱하게 번역한 것이 되어 잘못된 결론에 도달하는 우를 범하게 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필자는 심사자의 이런 지적에 대해 수긍하기 어렵다. 이 문장 앞쪽에는 도별도와 경위선식 군현지도의 문제점에 대해서만 길게 서술하고 있다. 따라서 이 문장은 그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식을 보여주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필자는 그러한 방식이 바로 대폭의 전도 형식을 취하고, 증판을 구분하여 고기비늘처럼 순서를 매겨 책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이해한다. 즉, 필자는 기존에 있었던 대폭의 전도를 사용하였다는 의미라기보다는 대폭의 전도 형식을 취했다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다. 필자도 대폭의 전도가 전혀 없었다거나 김정호가 그런 지도를 전혀 보지 않았다고 단정 짓지는 않는다. 그러나 만약 김정호가 대폭의 전도를 저본으로 사용했다면 그 단점에 대해서도 이 문장의 앞쪽에 서술해 놓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청구도범례나 청구도체 어디에도 대폭의 전도에 대한 내용은 나오지 않다. 필자는 이 문장만을 떨어뜨려놓고 보면 심사자처럼 해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전체적인 내용 속에서 파악하면 오히려 더 오독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앞으로 『청구도』에 대한 연구가 더욱 깊어져서 이 문장의 의미가 더 분명해지기를 바란다.
- 6) 金友正浩 年自童冠 深留意於圖志 歲久搜閱 詳諸法之輪 嶽 每值靜閑時 確論求得 比閔式簡 便畫成方野 無奈裁水 壘山 依散諸州 誠難按表查界[上二句 明流傳地圖之弊 一張之內 依里數畫縱橫井間 而以水派山脊 尚於其上 是乃 截水壘山也 三百三十四州縣 各畫一幅 小縣使張 大邑反 縮 及其查表察界 無異較寸而量尺 常多紊亂] 於是全幅區 裂 效神禹畫井田 邊線識書 倣昭代表曆算
- 7) 이들 지도집은 모두 <http://e-kyujanggak.snu.ac.kr>의 고지도 부분에서 서비스되고 있다.
- 8) 이 두 개의 지도집도 <http://e-kyujanggak.snu.ac.kr>에서 서비스되고 있다. 그리고 『조선지도』에는 전라도와 경기도의 일부 군현이 누락되어 있으며, 『팔도군현지도』에는 충청도, 경기도, 평안도만이 수록되어 있다.
- 9) 동일한 군현을 통해 대 종류의 지도와 『해동여지도』를 비교하려면 水原市에서 2002년 12월에 발행한 『水原의 옛地圖』를 참고하면 된다.
- 10) 『조선지도』의 각 고을을 합해 놓았을 경우의 한반도 전체적인 윤곽은 현재의 모습과 거의 동일하다. 당시까지 한반도의 전체적인 윤곽이 현재의 모습과 거의 동일한 지도로는 정상기의 <동국지도>가 제일로 알려져 있다. 이 점에서 『조선지도』와 <동국지도>는 상호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두 지도 사이에는 공통점뿐만

아니라 차이점도 발견되고 있다. 이런 차이점의 발생 원인으로 『조선지도』가 전도나 도별도인 <동국지도>보다 축척이 크고 내용이 더 자세한 군현지도였다는 측면이 고려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이유만으로 설명될 수 없는 부분이 몇 군데서 발견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廢四郡 지역의 모습은 정상기의 <동국지도> 계통과 전혀 다르게 그려져 있다. 이것은 이 지도집이 정상기의 <동국지도> 계통을 참고하였다라도 여러 부분에서 교정을 가했음을 추측할 수 있게 해준다.

- 11) 본 논문에서 검토한 『해동여지도』와 같은 지도책이 18세기말과 19세기에 1개만 있었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 『조선지도』와 거의 비슷한 지도가 현재 여러 본 남아 있는 것처럼 『해동여지도』와 같은 지도도 여러 본의 사본이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해동여지도』라고 언급하는 것은 현재 남아 있는 것뿐만 아니라 당시에 존재했을 동일한 사본의 계통 전체를 의미한다.
- 12) 이상태는 『해동여지도』를 소개하면서 經緯全圖에 나오는 경선의 수만을 참고하였다.(이상태, 1999, 215-216) 이것은 단순히 숫자의 문제만은 아니고 『해동여지도』와 청구도의 관계를 전혀 다르게 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경선과 위선의 문제는 각 면의 지도에 어떻게 표시되어 있는가에 주목해야만 『해동여지도』와 『청구도』의 관계를 분명히 할 수 있을 것이다.
- 13) 『동국지도』계통과 초기 수정본 계열은 오상학, 1994, 73·78에서 전제함.
- 14) 수록된 지명의 양과 종류에서 『해동여지도』와 『조선지도』, 『팔도군현지도』는 거의 동일하다.
- 15) 이상태의 경우 2장 1절에서 보았듯이 『해동여지도』의 동서 방안 수를 76개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經線이 76개라는 것을 방안 수로 잘못 이해한 것이다. 경선이 76개이면 방안은 75개가 된다. 緯線의 경우 『해동여지도』에 적혀 있는 121번의 번호와 제주도의 10개를 합하면 131개가 되어 방안은 130개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2책 함경도의 鍾城·穰城 부분을 보면 1번의 위선 번호 위에 지도의 내용은 없지만 1개의 위선이 더 있어 방안이 1개 추가되어 있다. 또한 1책 전라도의 羅州 섬부분을 보면 121번의 위선 번호 아래에 可仕(島)가 1개의 방안을 차지하고 있어 방안이 1개 추가되어 있다. 다만 여기서는 『조선지도』와 비교하기 위해 위선에 적혀 있는 번호와 제주도의 것만 추가하여 방안이 130개였다고 간주하고자 한다. 실제로 『조선지도』의 온성 지도에는 방안이 『해동여지도』의 것보다 1개 적게 그려져 있다.
- 16) 김기혁(2004) 교수의 조사에 의하면 이 經緯全圖와 거의 동일한 것이 들어 있는 『청구도』의 이본이 국립중앙도서관, 장서각, 영남대에 각각 1부씩 소장되어 있다. 앞으로 심도 깊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겠지만 필자는 이 經緯全圖가 들어 있는 『청구도』의 이본들은 김정호가 최초로 그린 『청구도』라고 생각한다. 아울러 이 經緯全圖가 들어가 있는 이본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김정호가 『해동여지도』 또는 그 계통의 지도를 가장 중요한 저본으로 사용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본다.
- 17)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양보경이 소개한 大阪府立圖書

館 소장의 『朝鮮圖』에도 이와 같은 특징이 거의 그대로 들어 있다. 그리고 수록된 지명을 통해 추정된 제작 시기가 『청구도』보다 더 빠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방식을 김정호가 창안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조선지도』나 『해동여지도』와 같은 지도의 출현으로 이와 같은 새로운 구성 방식을 개발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이 이미 존재하게 되었다는 측면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조선도』도 전체적인 윤곽이나 각 고을의 경계선, 수록된 지명 등 모든 측면에서 『조선지도』나 『해동여지도』와 거의 동일하며, 『청구도』에서 나타나는 몇 가지의 내용적 변화 시도는 거의 보이고 있지 않다. 따라서 『청구도』보다 더 이른 시기에 이와 같은 방식이 창안되었건, 김정호가 창안한 것이건 지도발달사의 입장에서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김정호가 靑丘圖凡例에서 『조선도』나 그것과 비슷한 지도를 보았다는 내용을 암시하는 어떤 기록도 남기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인지 앞으로 더 연구해 볼 문제이다. 아울러 『조선도』에는 『청구도』의 성격과 『동여도』 또는 『대동여지도』의 성격이 함께 내재되어 있는 점도 더 연구해야 할 부분으로 생각된다. 현재로서는 19세기에 김정호만큼 지도에 대한 업적을 남긴 경우를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후대에 『조선도』가 『청구도』와 『동여도』 또는 『대동여지도』의 장점을 서로 결합시켜 만들어졌을 가능성도 있다. 또한 김정호가 『청구도』를 만들기 이전에 초본으로 만들었던 지도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18) 김기혁(2004) 교수의 조사에 의하면 도성도가 들어가는 『청구도』의 이본은 국립중앙도서관, 규장각(청구요람), 고려대에 각각 1부씩 소장되어 있으며, 필자의 분석에 의하면 최종본에 가까운 것이다. 그런데 주 17)에서 經緯全圖가 있는 『청구도』의 이본에는 도성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필자는 김정호가 『청구도』를 새롭게 개조하면서 도성도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했던 것으로 추정한다.
- 19) 『청구도』는 이본들에 따라 범례가 다르게 사용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김정호가 초기에 만들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청구도』의 이본들에는 『조선지도』나 『해동여지도』의 범례와 동일한 것이 새로운 것과 혼재되어 발견된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규장각에 소장된 『청구도』에는 진보를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표시했으며, 산지를 줄기형으로 표시했는데 이것은 앞의 지도들과 동일한 것이다. 반면에 군현의 등급을 사각형, 다이아몬드형, 원형 등으로 구분한 점 등은 새롭게 등장한 범례이다. 김정호는 『청구도』의 내용을 개정하면서 범례의 사용에 대해서도 계속 고민했던 것으로 판단되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심도 깊은 연구를 기대한다.
- 20) 통치정보의 결합이나 범례의 사용 방법은 17세기 이후 일반에서 유행하던 목판본 지도책의 것과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이들 목판본 지도책은 주로 소속적으로 만들어졌지만 이용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정보를 간단하면서도 알기 쉽게 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청구도』와 이러한 목판본 소속적 지도책과의 관계에 대한 해명은 김정호의 지도에 대한 분석과 이해를 위해 앞으로 필요한 연구라고 생각된다.

21) 대표적인 것으로는 다음의 글이 있다. 朴寬燮, 1978, 115-153/方東仁, 2001, 215-223/元慶烈, 1985, 9-16

文 獻

- 김기혁, 2004, “靑邱圖의 異本 類型 研究.” 한국지
역지리학회 학술대회 발표집, 171-175.
- 박관섭, 1978, “大東輿地圖의 圖法 및 系譜에 관한
歷史·地理的 研究 -經緯線式 實測地圖 製
作史와의 比較 考察-,” 송소기념논총, 115-
153.
- 방동인, 2001, 韓國地圖의 歷史, 신구문화사.
- 양보경, 1992, “18세기 備邊司地圖의 高察 -奎章閣
소장 道別 郡縣地圖集을 중심으로-,” 奎章
閣, 15, 93-123.
- _____, 1995, “『大東輿地圖』를 만들기까지,” 韓國
史市民講座, 一潮閣, 84-121.
- _____, 1999, “일본 大阪府立圖書館 소장 『朝鮮圖』
의 高察,” 書誌學研究, 17, 421-436.
- 오상학, 2001, “고산자 김정호의 지도제작과 그 의
의,” 고산자 김정호 기념사업 연구보고서,
국립지리원, 27-100.
- _____, 1994, “鄭尙驥의 <東國地圖>에 關한 研究 -
製作過程과 寫本들의 系譜를 中心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원경렬, 1985, “地圖發達史에서 본 靑丘圖,” 地圖, 4,
9-16.
- 이병도, 1971, “청구도(靑丘圖) 해제,” 청구도 乾·
坤(고전국역총서 47), 민족문화추진회, 3-24.
- 이상태, 1999, 한국의 고지도 발달사, 혜안.
- 이우형, 1990, 大東輿地圖의 讀圖, 匡祐堂.

최초투고일 04. 01. 02

최종접수일 04. 06. 07